

INCHEON
PHILHARMONIC
ORCHESTRA

아티클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Magazine

50th ANNIVERSARY



Vol.34 2016 Summer

인천종합문화예술센터 문화예술포럼

<http://art.incheon.go.kr>



호류

8월, 내 순정의 주인공이 되어줘!



주변의 사람들을 배우로!
주변의 사물들을 소품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영화다!

독립영화감독 백승기





Cover Story

인천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기념
1964. 6. 1 창단

등록일 2008년 5월

발행인 손덕인

편집인 최구영

편집장 조우선

T. 032)420-2735 / E-mail, woos4242@korea.kr

편집·교열 유은미

취재·기획 정수산나, 오수지

디자인 기획 전재삼

디자인·인쇄 네오다큐

취재 홍유진, 장한섬

사진 유창호

디자인 최재임

발행일 2016년 6월 1일

발행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21569]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

<http://art.incheon.go.kr>

Contents

Column & Interview

- 06 People1 염정미 유씨_배우 유순웅
- 10 공주영의 미술이야기 신고전주의 미술
- 14 People2 장한섬의 한담(閑談)과 섬씽 (something)_이정하

Preview

- 18 Orchestra 교향악단 제355회 정기연주회
- 20 Classic 솔로모 민츠&윤동환
- 22 Theatre 경숙이, 경숙아버지
- 24 Choir 모나코 왕실 소년합창단
- 26 Classic 2016 뽀머페스티벌
- 28 Screen 2016 스테이지 온 스크린

Review

- 30 Photo-Review 양들의 회전목마 (Carrousel des moutons)
- 32 Cartoon-Review '의식의 4단계'
- 34 Classic 클라라 주미 강 & 필론 챔버 오케스트라

Information

- 37 Issue 지역 언론과 지역의 문화·예술 II
- 40 해외통신원 독일의 극장
- 44 IMAG (Incheon Metropolitan Arts Group)
'도시엔 문화를 입히다' 문화관광체육국장_김상섭
- 48 News 합창단 동영국제음악제 참가 외
- 51 Performance 6~8월 공연 소개
- 54 Exhibition 6~8월 전시 소개



06



10



14



18



20



22



24



26



28



30



40



44



‘염쟁이 유씨’가 보여준 창작극의 힘

배우 유순웅

글 홍유진 사진 유창호

수많은 배우들 가운데 일생의 역할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자신의 이름보다 ‘염쟁이 유씨’라는 타이틀을 먼저 알린 배우 유순웅씨를 만났다. 햇수로 12년째, 3000회를 넘긴 후로는 세기를 포기했다는 명실공히 최고의 1인극은 아직도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다.



3000회 기록의 모노드라마 ‘염쟁이 유씨의 탄생’

12년 전, 충북 청주의 한 작은 극단에서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20년간 연극 외길을 걸어왔지만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었던 중견배우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고, 작가는 그 이야기에 숨을 불어넣은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모노드라마 ‘염쟁이 유씨’는 청주의 한 소극장에서 초연한 이래 알음알음 입소문이 퍼졌다. 오랜 기간 마당극을 통해 갈고닦은 20년차 배우의 연기력은 1인극에서 빛을 발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연기와 타고난 흥과 끼가 관객들을 쥐락펴락, 웃겼다 울렸다 하며 완벽하게 사로잡은 것. 그렇게 시작된 1인극 ‘염쟁이 유씨’는 2006년 서울 대학로에서 장기 공연을 시작했고 무려 3000회가 넘게 무대에 오를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청주에서 시작할 때부터 반응이 무척 좋았던 작품이에요. 이렇게 오래갈 줄은 저도 상상하지 못했죠. 연극을 시작한지 20년 되던 해, 이제 나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어볼 때도 되지 않았나, 해서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좋아해주셨어요.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유씨는 조상 대대로 염을 업으로 삼아온 집안에서 태어난 염쟁이다. 어느 날 일생의 마지막 염을 하기로 결심하고,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반함, 소름, 대럼, 입관에 이르는 염의 절차와 의미를 설명하며 염의 전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과정 중간 중간마다 자신이 겪어왔던 사연을 이야기 해준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동네에서 염을 도맡아 해주곤 하셨어요. 돈 받고 하는 일은 아니었고 당시에는 누가 죽으면 지역의 존경받는 어른들이 염을 하곤 했던 모양이에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숙하게 누군가의 시신을 다루던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의 그 기억이 수많은 상상을 하게 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염’이란 ‘거둔다’는 뜻으로 쉽게 말해 시신을 거두어 묶는 작업을 말한다. 인간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다 보니 인생사에 대한 통찰과 세상살이에 대한 철학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 ‘염쟁이 유씨’는 이렇게 죽음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다.



창작 연극만을 고집하며 달려온 이유

‘염쟁이 유씨’의 대성공이 갖는 의미는 지방 창작 공연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데 있다. 과거에는 지역마다 나름의 색깔을 지닌 공연시장이 자립적으로 존재했었지만 언젠가부터 서울 공연의 소비시장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지역예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는 지방 공연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창작’만이 해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셰익스피어 작품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영국인들이 하는 작품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작품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객들 반응이 좋은 나쁘든 20년 넘게 창작 연극만을 고집해 온 것도 그러한 이유였죠.”

‘염쟁이 유씨’에는 유순웅 배우의 이러한 연극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었고, 그의 판단은 적중했다. 대학로에서 히트한 작품이 천천히 지방에 보급되는 기존의 틀을 깨고 지방 공연을 역으로 서울 그리고 방방곡곡에 퍼뜨리게 된 것이다. 고 추송웅의 ‘빨간 피터의 고백’이 세운 1천회 기록을 가뿐히 넘기고 국민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는 모노드라마로

자리매김했다.

“지역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서울처럼 분업화되어 있지 않아서 배우가 무대미술, 영업 등 만능 역할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지역배우라는 정체성을 잃고 싶지 않아요.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 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청도에서 출퇴근하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최근에는 국립극단과 함께 ‘국물 있사옵니다’라는 작품을 통해 특유의 감초연기를 선보이기도 한 유순웅 배우. 연기에만 몰입할 수 있는 서울의 작업 환경에 더없이 만족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고향에서 작품을 올리겠다는 다짐이다.

관객이 있는 한 연극은 계속된다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 하는 배우에게 이미지가 한 가지 역할만 고착

되는 것은 분명 부담이 큰 일일 터. 유순웅 배우에게도 수천 회 같은 연기를 해왔던 지난 12년이 녹록치만은 않았다고.

“800회 넘어가면서부터는 에너지가 고갈되는 게 느껴졌죠. 그런데 곧 1000회니까 버티보자. 하고 슬럼프를 이겨냈고,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조금만 있으면 1500회니까, 2000회니까, 3000회를 넘기고나서부터는 세는 일도 관두고 말았어요. 이제 제 의지로 하고 그만하고를 결정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처음 염쟁이 유씨를 연기했을 때는 고작 42세에 불과했다. 70대 노인 분장을 하기 위해 머리를 희게 칠하고, 주름을 그렸다. 그러나 지난 12년 사이 그의 머리카락을 반 넘게 세어버렸다. 이제는 분장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이제는 불러주시는 곳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이 작품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이미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이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염쟁이 유씨’는 오는 8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커피콘서트에 초대될 예정이다. 늘 작은 콘서트 위주로 진행되던 커피콘서트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연극인 셈인데, 그 또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올초에 서울에서 장기 공연을 끝내고 지금은 가끔씩 찾아주시는 분들을 위해 가끔씩 공연하고 있어요. 좋은 연극 하나 봤다고 인생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죠. 아주 조금이라도.”

‘염쟁이 유씨’는 죽음을 소재로 하는 연극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잘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셋의 베테랑 배우는 자신만이 소화할 수 있는 역할과 더불어 하루하루 무대 위에서 잘 살아내고 있었다. **이재민**

낭만주의 미술



▲ 델라크루아, 인종을 아르는 자유

인간의 민낯

인간은 세상의 중심일까. 세상은 끊임없이 진보할까. '그렇다' 적어도 이 질문에 대한 프랑스 대혁명기의 대답은 이렇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 신뢰되었고, 세상은 혁명을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었지요. 그런데 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인간과 사회의 개혁에 대한 회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멋진 명분을 이루기 위해 동원된 방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혁명의 반역자가 색출되고, 단두대에서 제거되는 과정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했습니다. 폭력적이기도 했고, 비정상적이기도 했습니다. 인간 내면에 자리하고 있던 야만과 광기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실현하고자 하는 명분은 논리적인 것이었지만 전개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해 모순이 컸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우리가 믿었던 것처럼 근사한 존재가 아닐지 모르겠다.' 18세기말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유럽 사회는 인간을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성과 합리성의 신화에 가려져 있던 것들에 주목했어요. 특히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직관과 감정, 상상과 환상들을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의 중심으로 승리와 영광의 존재들은 화면 밖으로 밀려납니다. 대신 미술의 역사에서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던 주인공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제리코의 <제리코, 질투에 사로잡혀 미친 여자>는 완벽하게 미술이 재현해 온 권력자들을 그려온 초상



제리코, 질투에 사로잡혀 미친 여자

화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림 속 주인공은 험준한 산맥을 거침없이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의지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눈앞의 위험 요소를 적절히 제거하거나, 선택의 순간 재빨리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리코, 질투에 사로잡혀 미친 여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무기력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불안이 영혼을 잠식한 모양입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정신병원에 수용된 <제리코, 질투에 사로잡혀 미친 여자>에게만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프리드리히, 바닷가의 수도승, 1809

<바닷가의 수도승>도 세상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개가 떠오르는 바닷가는 팽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에 비해 수도승의 크기는 무척 작습니다. 너무 작은 탓에 수도승을 찾는 일은 어렵기만 합니다. 프리드리히의 <바닷가의 수도승>은 경이로운 자연의 위력을 감당하기조차 벅차 보입니다. 낭만주의 이전의 미술에서 인간은 자연의 기록자이고, 소유자이자 또 정복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은 자연의 위협적인 힘 앞에서 미려한 존재일 뿐입니다. <바닷가의 수도승>처럼 자연과 마주한 인간은 보잘 것 없는 자신의 크기를 확인 중이겠지요. 통제 불가능한 욕망,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 앞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영혼을 낭만주의 미술은 직시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비로소 정직하게 마주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민낯이기도 했습니다. 그다지 강인하지도, 그다지 고귀하지도 않은.

“나는 혁명을 그릴 수는 있다.”

1789년 대혁명 이후 프랑스에는 크고 작은 혁명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사회적 격동기의 역동적 분위기는 여러 미술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혁명을 다룬 대작들을 남긴 예술가들 중에서 다비드와 들라크루아는 손꼽을만한 예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혁명기를 살았던 다비드는 현실 속에서 혁명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또한 그가 그린 혁명가들은 위대한 영웅이자, 숭고한 희생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이 끝난 뒤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들라크루아는 혁명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다비드와 사뭇 달랐습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는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 1798~1863)가의 대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 정신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림은 1830년 파리에서 있었던 7월 혁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혁명은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국왕은 샤를 10세였습니다. 비운의 군주 루이 16세의 동생이었지요. 보수적 성향의 정치인이었던 국왕은 7월 25일 언론 통합을 선포했습니다. 프랑스 증권시장이 폭락한 그 다음날 진보적 성향의 언론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노동자, 학생,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동조하면서 또 한 번의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흥분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파리의 시청사를 점령하고자 했지요. 화가는 우연히 시민군과 왕실군위대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시가전과 마주했습니다. 흥분한 채 바리케이드를 쌓고, 무기를 준비하고, 군대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모습에 그는 겁을 먹었다지요. 하지만 그는 우연히 목격했던 뜨거운 7월 28일의 잊을 수 없는 장면을 화폭에 담기로 결심했지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를 그린 들라크루아는 시민이 주도했던 7월 혁명을 정치적으로 지지했을까요.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가 혁명을 응원했다면 시민군은 좀 더 멋지게 묘사했겠지요. 그는 자유를 상징하는 여인을 비롯하여 시민군들을 영웅처럼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 표현했어요. 시민군들의 부끄러운 행적을 삭제하지 않

는 예술적 결단을 감행한 것이지요. 그림 속 시민군 중에는 소년도 있습니다. 혁명에 뛰어들어 소년은 탄알을 끼운 탄대를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탄대는 왕실 근위대에게 약탈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자를 쓴 청년도 등장합니다. 모자는 왕실 수비대의 병사에게 빼앗은 것입니다. 시민군과 왕실 근위대 사이에서만 약탈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위도중 숨진 시민의 물건과 의복의 일부는 다른 시민의 것이 되었습니다. 숨진 시민군이 바지가 벗겨진 채 쓰러져 있는 것도 이런 연유 때문이었어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에서 자유는 숭고한 정신이 아닌 폭력적 사태의 전리품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혁명에 대해 들라크루아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캔버스 세 개를 이어 붙여 3개월 만에 열정적으로 작업한 〈민중을 이끄는 자유〉는 혁명의 거리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혁명에 잠깐 동조하는 마음과 비판적 태도 사이를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림에도 그는 혁명과 관련해 분명한 생각 하나를 유지했어요. 그는 혁명을 그리는데 일과 혁명에 찬성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여겼답니다.

동시대의 사건, 동시대의 인간

낭만주의 화가들은 몇몇은 동시대의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터너의 〈노예선〉과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은 각각 영국과 프랑스 사회를 발라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시기는 다르지만 두 사건 모두 발생의 장소가 바다였고, 비인간적인 인간의 모습을 확인케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840년 터너가 그린 〈노예선〉은 1783년의 발생했던 사건을 예술로 재구성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은 〈노예선〉에 발생한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예를 태운 배 안에 전염병이 발생한 것이었어요. 배 안에는 400명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노예 중 일부가 죽기도 했고,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예선〉의 환경은 열악했거든요. 햇빛도 들지 않는 비좁고, 밀폐된 공간에 노예



터너, 노예선



제리코, 메두사호의 뗏목

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쇠사슬에 묶인 채로 말이지요. 대륙에서 대륙으로 이동하는 〈노예선〉에서 노예들은 몇 개월씩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돌자 〈노예선〉의 선장은 믿을 수 없는 결단을 감행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에 노예들을 던져버린 것이었어요. 병들었으나 아직 살아있는 노예들은 깊은 바다에 버린 이유는 단 한가지였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였지요. 〈노예선〉은 출항 전에 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보험 계약서에서 노예는 물건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노예선〉에 두려움의 요소는 많습니다. 높게 일렁이는 파도가 겁납니다. 피냄새를 맡고 〈노예선〉에 접근하는 상어 떼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존엄한 생명보다 우선시 한 선장의 태도가 가장 무섭습니다. 영국에서 노예 거래는 1807년 공식적으로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노예선〉이 발표될 무렵에도 비인간적으로 노예를 사고파는 행위는 중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 또한 충격적인 사건의 기록입니다. 1816년 7월 2일 메두사 호가 세네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네갈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배 안에는 군인을 비롯하여 이주민이 150여 명 가량 있었답니다. 그런데 세네갈에서 새로운 삶을 펼칠 이주민들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항해 중이던 메두사 호가 좌초되는 뜻밖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배의 구명보트는 군인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군인들이 탄 구명보트가 탈출용 뗏목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줄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군인들은 뗏목과 연결

된 줄을 끊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생존을 위한 15일 간의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있었고, 살해가 있었고, 식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터너나 제리코와 같은 낭만주의자들은 세상의 겉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인간의 마음의 안자락을 미술로 포착해 내고 싶어 했어요. 특히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과 공포에 관심이 많았지요. 인간의 삶에서 폭력과 공포는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미술에서 인간은 평화와 균형의 시각으로 접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장에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듯이,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이 한 개인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의 내면을 새롭게 깊게 하여 자유에 이르게 하기도 하지요. 이들은 관심사를 찾기 위해 과거의 사건이나 상상의 이야기까지 터들어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물건으로 간주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폭력이 생존의 방법으로 등장하는 〈노예선〉, 〈메두사호의 뗏목〉 같은 사건만큼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날날이 보여주는 사건은 또 없었을까요. **이동민**



글 공 주 형

미술평론가
한신대학교 교수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박수근 회화론으로 박사 학위 취득, 200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단 저서로 〈사랑한다면 그림을 보여 줘〉, 〈색깔 없는 세상은 너무 심심해〉(착한 그림 선한 화가 박수근), 〈나를 완성하는 미술관〉등 현재 한신대학교 정조고양대학 교수

장한섬의 한담(閑談)과 섬씽(something)

스스로 물러남(自退)은 거리두기와 다가가기를 위한 자기복원력

청년기획자 이정하

인터뷰 글 장한섬(플레이캠퍼스 대표)
사진 유창호

언제 세워졌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당시 일을 창고로 사용되었다는 플레이캠퍼스 극장. 한 때 인천 연극의 메카로 불리던 '돌체소극장'으로 더 유명한 이 곳에 극장지기이자 지역문화기획자 장한섬이 있다. 예술가의 활발한 창작활동이 물론 중요하지만, 아들을 아울러 무대를 꾸리는 문화기획자의 역할이 절실한 지역문화계의 현실에 공감하며 장한섬이 만나려 간 사람들, 지역의 젊은 기획자들을 찾아가 한 가로운 노닥거리를 통해 매의 눈으로 지역문화를 변화시킬 에스프레소와 같은 섬씽(something)을 꼭 집어내려 한다.



기획자란 꼬리표가 붙기 전, 이정하는 바다를 건넌다. 동인천에서 306버스를 타고... 목적은 시간 때우기. 부모님은 모른다. 등교인 줄 안다. 무작정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내렸다. 그녀는 당시 두 번째 자퇴(自退)를 했다.

이정하 "이게 훗날 버스토리(bustory)의 여행콘텐츠 '306버스를 부탁해'가 돼요."

버스토리(bustory)는 2012년 이정하가 친구들과 세운 인천동네전문 여행사다. 마을 단위로 정류소를 누비는 버스처럼 인천 구석구석을 다녀보자는 의미다.

이정하 "인천청년들은 주체적으로 인천을 인식할 기회가 부족해요. 그래서 '인천은 후지다'는 인식 속에서 살아요. 버스토리의 목적은 자신이 사는 인천을 알고,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발생한 경험들이 또다시 지역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고자 했어요."

장한섬 "왜 망했나요?"

이정하 "망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만 둔거고, 아직 있어요."

장한섬 "청풍이 없어지면서 망한 줄 알았는데..."

청풍은 '청년플러스'의 줄임말로, 인천문화재단이 2012년 인천청년들을 위해서 인천중구 신포동에 마련한 문화공간으로 버스토리의 거점이었다. 자칭 열려있는 실험실(OPEN LAB)이었지만 열려있는 실험 대신 닫혀있는 회의만 하다 청년의 플러스가 아닌 처량한 플메기로 망했다(는 것이 필자의 억측이다).

장한섬 "루비레코드는 언제 입사했나요?"

이정하 "2014년 가을이요."

요약하면, 이정하는 1988년 인천동구 송림동에서 태어나 서흥초등학교, 박문여중과 박문여고를 졸업했다.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에 들어갔으나 입학한영식 때 "아니다" 싶어 자퇴를 한다. 재수 후 백석대학교 중국어학부에 들어가지만 1개월 후 또 자퇴한다. 이때 무작정 버스를 타고 인천을 유람한다. 그 즈음 안양대학교 영어영문과로



편집하고 2014년 졸업한다. 재학 중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시민창작뮤지컬 '인천알츠에도 참여한다. 졸업 후 경인방송에서 보조 음반심의를 하면서 1년 가까이 일하다 루비레코드에 들어간다. 참고로, 루비레코드는 2011년까지 부평역 모델촌에서 라이브클럽 루비살롱을 운영했고, 지난 3월에 신포동 음악축제 '2016사운드바운드'를 주최했으며, 5월에는 '사운드바운드 in 부평 에스컬'을 할 예정으로 미군부대·기지촌 클럽 등 굴곡진 '부평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펼치고자 한다. 해몽하자면 이정하는 인천출신 대표와 인천을 진원지로 성장한 루비레코드와 연을 맺으며 인천의 탈영토화와 함께 서울에서 인천의 재영토화를 동시에 이룬 셈이다.

이정하 “2011년 신포동 청년축제 ‘좋아요, 인천!’을 준비하면서 만난 친구들과 버스토리리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여행사가 아닌 잡지였어요. 지역언론사 인천in의 기사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동기가 생겼고, 2012년 인천 중구에서 ‘청년창업경진대회’에 선발되면서 본격적으로 여행사로 움직였어요. 경험이 없어 첫 수익금을 법인세로 전부 낸 적도 있어요. 완전 맨붕이었죠.”

버스토리(BUSTORY=Bus+Story) 소개는 다음과 같다.

인천에는 독특한 매력을 뿜내는 버스가 많습니다. 33버스는 어시장의 상싱함울, 15버스는 예술가들의 마을과 배다리헌책방마을의 소박함을 담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청년들은 율미도로 향하는 45버스의 유쾌함을 좋아하고, 연인들은 의자가 높은 111버스를 좋아합니다. 혼자 있고 싶은 날에는 306버스의 긴 노선에 몸과 마음을 맡기기도 합니다. 소개해드린 버스 중 타고 싶은 버스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인천이 궁금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버스토리를 타면 됩니다. 버스토리라는 인천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달리는, 인천을 가장 재밌게 여행하기 위한 버스입니다.

장한성 “버스토리는 왜 그만됐나요?”

이정하 “6개월쯤 한 후 저는 그만두고, 현재는 친구가 대표를 맡고 있어요. 처음에는 재미로 했는데, 뭔지도 모른 채 대표와 기획팀장을 맡다보니 기획도 못하고 조직 내 트러블과 서류더미로 힘들었어요. 다시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았죠. 그때 기회가 닿아 플레이플래닛이라는

공유기업에서 여행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후 루비레코드에 들어왔죠.”

장한성 “인천탈출에 성공했군요?”

이정하 “저는 인천이 철새도시라고 생각해요.”

장한성 “뜨내기들의 도시?”

이정하 “아니요. 텃세의 폐쇄성보다 이동성이 자유로운 도시요, 떠남과 남음의 이별보다 새로운 만남과 발견으로 열린 도시라고 생각해요. 도시가 철새처럼 날아가진 않잖아요.”

장한성 “앞으로의 꿈은 뭔가요?”

이정하 “공연을 위한 여행이요.”

버스토리의 진화처럼 들린다. 인터뷰는 합정역 부근 루비레코드가 있는 건물 커피숍에서 진행했다. 4·13총선 다음 날이다. 인천에서는 70대 전·현직 다선 국회의원이 낙선했고, 인천에서 성장한 후보들이 초선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정치·경제·문화가 지역성을 바탕으로 공진화하는 변화로 해석된다. 이 중 가장 느린 게 문화영역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정하 기획자를 만난 후 속도보다 자신만의 시각과 저력이야말로 문화영역, 특히 문화기획자의 자질이 아닌가 싶다. 또한 그 연장선장에서 버스토리의 문화사적 의미를 풀이하면 물리적 이동수단, 특히 출퇴근을 위한 기능성 버스(도로)에 여행의 여정과 장소의 의미를 부여한 정서적 전환과 확장, 그리고 분주한 동선에 종속된 일상을 스토리라인에 정주한 인상의 변주로 생활의 드라마를 주인공으로 체험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천의 문화는 인천세계도시축전과 인천아시아경기 등 대형이벤트로 축약된다. 그 결과 인천시민은 동원인력과 구경꾼으로 머물렀다. 주인공이 아닌 관람객으로 박수만 쳤다.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슈퍼스타와 이를 위한 서바이

벌 오디션이 아닌 동네스타와 동네이야기다. 명품도시를 위한 부동산 가치와 입시 경쟁보다 수다스런 소박함과 횡단적 연계성이 인간을 위한 명량도시를 만든다. 그런데 인천은 반공도시다. 맥아더 ‘동상’을 위한 반공성지다. 인천시립박물관에 있는 우현 고유설(又玄 高裕燮, 1905~1944) 동상과 선생의 ‘미학’은 모른다. 그러다보니 인천에는 인천이야기가 없다. 정확히는 인천시민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없다. 반공도시에서 공공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과 힘이 있어야한다. 즉, 반복과 환멸이 작동하는 일상에서 전복과 환기를 위한 거리두기와 다가가기가 가능한 생활미학이 필요하다. 이러한 미학이 없을 때 자퇴 대신 자학이 작동한다.

“헬조선”이 도래하기 전 ‘저주의 땅’ 인천(청년 실업률과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에서 진퇴양난의 딜레마 대신 자퇴양난의 드라마를 저렴한 제작비(버스비)로 찍은 이정하 기획자는 집단의 논리 대신 자신의 직관을 따랐다. 기존 관념으로는 탈선이자 불량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정하 기획자는 성공과 혼장과는 거리가 멀다. 명성과 명품인생을 좇는 질주보다 자성과 자생력을 키우는 거리두기와 다가가기를 위한 자퇴(스스로 물러남)를 택했다. 이러한 선택은 여백을 남는데, 스포츠카를 위한 고속도로 대신 버스가 정착하는 ‘정류소’와 그 시간을 채우는 ‘이야기’를 동반한다. 그 장소성과 이야기는 버스 안에서 분리된 승객의 침묵으로 묵살 당하는 대신 버스 밖까지 들리는 주인공들의 연대감으로 세계공유를 이룬다. 탈산업화를 맞은 인천은 이러한 버스(대중성)과 (공간)스토리가 필요하다. 이정하 기획자의 버스토리는 집단(관성)으로부터의 자퇴야말로 아름다운 자태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이정하**

RAINBOW SEASON Blue

낮설음과의 조우, 신세계

Unfamiliar Encounter, The New World



공연일시 : 2016년 6월 10일(금) 오후 7시30분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객원지휘 : 김덕기 / 협연 : 피아니스트 박은식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예매문의 : 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유료회원 032)420-2000, 엔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레인보우 시즌의 마지막, 인천시향 낮설음과 조우하다

인천시립교향악단 50주년을 맞이하여 출범한 첫 번째 시즌, 그 마지막을 장식할 음악회는 낮설음에 도전 그리고 익숙함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하는 음악회로 6월 10일 금요일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PROGRAM

홍퍼딩크(1854-1921)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중 <판토파임과 저녁기도>
프로코피예프(1891-1953)	피아노 협주곡 제2번 g 단조 Op.16
드보르작(1841-1904)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e단조 Op.95

*일정 및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판토파임과 저녁기도〉 그리고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과 피아니스트 박은식 첫 곡으로 연주될 〈판토파임과 저녁기도〉는 그림형제의 원작을 바탕으로 홍퍼딩크가 작곡한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중 헨젤과 그레텔이 숲 속에서 잠든 사이, 14명의 천사가 밝게 빛나는 긴 옷자락을 끌며 나타나 저녁 기도 음악에 맞춰 돌췌 팔짱을 끼고서 잠든 아이들을 지켜주는 장면의 곡이다.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은 그의 피아노 협주곡들 가운데 두 번째로 긴 연주시간을 요할 뿐만 아니라 변화무쌍한 멜로디들의 향연이 네 개의 악장에 뽀족히 담겨 있는 대곡으로 피아니스트 박은식이 협연한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액스(Emanuel Ax)로부터 "주도면밀한 테크닉과 마술적인 색채를 표현해내는 연주자"라는 찬사를 받은 박은식은 국내외 현지 평론가와 청중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수많은 연주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이 두 곡 모두 인천시립교향악단에 의해 처음 연주되는 곡들이다.

마에스트로 김덕기, 드보르작의 〈신세계〉를 새롭게 해석하다.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 이 시대에는 '오로지 자신의 마음 속에서만 신세계를 찾을 수 있다' 고 한 희곡의 대사처럼 드보르작이 미국의 광활한 자연과 대도시의 활기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을 그린 작품으로 작곡된 뒤 지금까지 인기를 잃은 적이 없는 명곡이다. 인천시립교향악단에서 가장 많이 연주한 교향곡 중 하나인 이 곡을 전임 인천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출신 마에스트로 김덕기의 지휘로 연주한다.

서울대학교 지휘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덕기는 오페라에 대한 탁월한 연주와 해석력으로 국립오페라와 시립오페라,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 발레단의 여러 작품을 통해 알려진 지휘자로 무대 예술제작에 관여하는 전문가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지휘자이다. 오페라 〈베르테르〉, 〈페도라〉, 〈포스카리 家の 두사람〉등을 한국 초연하였고, 서울시오페라단의 '베르디 Big 5시리즈' 등 국내외의 중요한 공연들을 지휘하였다.

이찬민



'솔로모 민츠 & 윤동환'

세계적 거장과의 만남



공연일정 : 2016년 6월 30일(목) 오후 8시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예매문의 : 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유료회원 032)420-2000),
엔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솔로모 민츠 "인간이 듣고 싶어하는 가장 치명적인 바이올린의 매력을 담은 연주" - Milwaukee Sentinel, USA -

윤동환 "윤동환은 항상 밝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열린 마음을 가진 학생이었고, 열린 마음은 곧 열린 생각을 의미하지요. ... 저는 그가 현재 한국의 바이올린계의 선두주자 중 하나일 것을 확신합니다."

- 바이올리니스트 솔로모 민츠 -

PROGRAM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	'현을 위한 교향곡 8단조'
요한 세바스찬 바흐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콘체르토 D단조'
안토니오 비발디	'사계' 전곡

*프로그램은 향후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솔로모 민츠(Shlomo Mintz)의 내한 듀오 연주회

세계적인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솔로모 민츠(Shlomo Mintz)가 6월 29일 금호아트홀 연세, 3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내한 연주회를 갖는다. 솔로모 민츠는 이미 11살 때 마에스트로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줄리어드에서 도로서 딜레이를 사사하였으며, 슈테른, 필만, 주커만 등과 함께 유태계 바이올리니스트의 계보를 정통으로 계승한 연주자이다.(노모토 이사오) 또한 동료, 청중 비평가들 사이에서 현 시대의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의 제자 바이올리니스트 윤동환과 함께 <솔로모 민츠 & 윤동환 : 세계적 거장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비발디의 사계는 솔로모 민츠가 아이작 스톤, 핀커스 주커만, 이작 필만과 함께 그라모폰에서 녹음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한 작품이다. 이 음반에서 "가을"을 연주했었는데, 이번 공연에서도 "가을"과 "겨울"을 연주할 예정이다.

솔로모 민츠가 지목한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윤동환

이번 공연에서는 솔로모 민츠가 특별히 지목한 한국의 전도유망한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윤동환과 함께한다. 바이올리니스트 윤동환은 스위스 취리히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심사위원 만장일치 최우수 점수로 졸업하고 귀국하여 2016년 삼성 라이징스타 시리즈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삼성전자 콘서트홀에서 리사이틀을 가졌으며, 현재 충남대 겸임교수로 출강 중이다. 솔로모 민츠는 스위스 시옹페스티벌에서 그의 연주를 접한 후 "자연적이고 타고난 순수한 색깔을 가진 연주자"라고 극찬을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바흐 콜레기움 서울>의 반주로 함께 이루어지는데, 솔로모 민츠의 지휘로 C.P.E. 바흐의 교향곡 5번을 비롯하여, 솔로모 민츠와 윤동환이 함께 J.S.바흐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비발디의 <사계>를 연주한다. **이제 시작**

스테이지149 연극선집2

'경숙이, 경숙아버지'

공연일시 : 2016년 7월 8일(금) ~ 9(토) 금 오후 8시 / 토 오후 3시, 7시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연령 : 14세 이상

관람료 : 전석 2만원

예매문의 : 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유료회원 032)420-2000, 엔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아빠여, 어데 갑니까? 아직도 그래 갈 데가 많이 남았습니까?”

▶ 연극이 막을 내릴 때쯤이면 경숙아버지는 미워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왜 그랬는지, 그 속을 알 수는 없지만 그림고 보고 싶다. - 중앙일보 -

▶ 몸짓, 목소리, 표정... 소름 돋는 연기 - 동아일보 -

▶ 웬지 알 수 없는 눈물이 마구 쏟아진다. - 조선일보 -

▶ 배우들이 관객에게 인사하는 순간.

벌떡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다. - 경향신문 -

*일정 및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경숙이, 경숙아버지 父女の 화려한 기록

연극<경숙이, 경숙아버지>는 2006년 초연 시 올해의 예술상, 대산문학상 희곡상, 한국연극평론가협회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3, 동아연극상(작품상, 희곡상, 연기상-고수희, 신인상-주인영), 허서연극상(기대되는 연극인상-주인영)을 수상하며 화제로 떠오른 작품이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마녀역, '괴물'의 간호사역 등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던 경숙어메 역의 고수희, 이미 매니아층을 거느리고 최근 MBC 주말드라마 '결혼계약'에서 기대이상의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경숙아메 역의 김영필, 이 작품으로 동아연극상에서 신인상을 거머쥔 경숙역의 주인영, 각자의 배역으로 주인공 못지않은 무게감으로 무대를 채우며 괴물에 가까운 연기 투혼을 불사른 배우들의 '명품 연기' 또한 관객들의 마음을 후려치기에 부족함이 없다.

갈 데까지 갈 "꿀장" 아버지, 어이없이 "깜찍한" 딸년의 잊지못하리라 가족사
<경숙이, 경숙아버지>는 한국전쟁 무렵을 배경으로 가족을 내팽개치고 자유를 찾아 세상을 방랑하는 이기적인 아버지와 이런 아버지를 지켜보는 딸의 애증을 그린 작품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면서도 대립하고, 이해하면서도 갈등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웃음과 눈

물로 버무린 우리네 “뽕짝” 같은 공연이다. 현대대 도시민의 일상을 펼쳐 보이며, 우리의 우울한 일상의 끝은 절망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면서도 관객에게 어딘가에 있을 희망의 존재를 상기시키게 하는 매력을 지닌 작품이다.

시놉시스

아버지는 일제말기 소 판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나 만주 친구를 만나러 가출을 한다. 해방 후 어머니를 속여 결혼을 해서 나(경숙이)를 낳는다. 억척스런 어머니 때문에 잠시 행복이 찾아오다가 싶더니 갑자기 전쟁이 터지자 나와 어머니를 버리고 혼자 남쪽으로 피난길을 떠난다. 그러다 낙동강 근처에서 인민군의 포로가 되고 포로 신세를 면하려고 인민군에 자원입대를 하게 된다. 전쟁이 끝나고 거제도 수용소에서 석방된 아버지는 무일푼으로 집에 다시 돌아온다. 돌아온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어머니... 아버지는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어머니에게 아들을 못 난다고 구박을 하기 시작한다. 급기야 아버지는 젊은 여자를 만나 집을 떠나 새 살림을 꾸리는데...

이정미

2016 클래식 시리즈3

‘모나코 왕실 소년합창단’



공연일시 : 2016년 7월 16일(토) 오후 7시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 람 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예매문의 : 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유료회원 032)420-2000,
 엔티켓 1538-2341, 인터파크 1544-1555



PROGRAM

마크앙투안 샤르팡티에 | 천국으로 가자
 조반니 비티스타 페르골레지
 | 슬픔의 성모께서 일어서시니, 불타는 이 마음 허락하소서
 마하엘 하이든 | 마그니피카트
 가브리엘 포레 | 베네딕투스, 선언, 돌리 - 자장가
 리차드 루시언 테리 | "Short Mass in C"
 파블로 카잘스 | 나 비록 까맣지만
 펠릭스 멘델스존
 | "Tulerunt Dominum meum" Op. 39 n°3
 가브리엘 포레 | 거룩한 성체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 영광을!
 욱인영가 | 조슈아
 Sally DeFORD | "An instrument in thy hand"
 모나코 전통음악 | "Vegnivene tutia canta"
 필립 뢰비 | 나는 고국을 꿈꾸네(영화 메리크리스마스 中)
 리차드 로저스 | 내가 좋아하는 것, 도레미
 Barry - Robin - Maurice GIBB | "How deep is your love"
 프랑스 노래 | 남과 여, 사랑의 찬가, 상절리제

*일정 및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모나코 왕실 소년합창단〉공연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자체기획 "2016 클래식시리즈"의 세번째이다. 3년만에 대한공연이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는 10년만에 다시 찾아온다.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세계적인 소년합창단의 이번 인천공연은 인천시민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안겨 줄 것이다. 또한, 이번 공연은 인천 시민에게는 보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리적인 관람료와 다양한 할인율을 제공한다.

모나코 왕실 공식 문화사절단의 대한공연!

소년답지 않은 세련된 기교와 청아한 음색으로 '감미로운 선율을 빚어내는 천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나코 왕실 소년합창단은 모나코 왕실의 공식 문화사절단이다. 세계에서 2번째로 작은 나라인 모나코에서 온 이들은 대한공연 때마다 유럽 성가대의 수준 높은 종교 음악의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중음악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세계 3대 소년합창단이라 칭송받는 모나코 최고의 예술단체!

지중해의 물빛과도 같은 사파이어의 찬란한 음색으로 세계 3대 소년합창단이라 칭송 받는 모나코 최고의 예술단체로서 전 세계에 모나코의 음악적, 문화적 광채를 전달하며 문화사절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이들은 이번 대한공연에서 더욱 더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레퍼토리와 천상의 소리를 통해 새로운, 맑은 감동을 들려 줄 것이다.

다양한 레퍼토리를 자랑하는 '노래하는 작은 천사'

모나코 왕실 소년합창단은 '노래하는 작은 천사'의 역할을 여러 소의 받은 장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병원, 동유럽, 아프리카의 학교, 브라질의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공연 등 모나코의 작은 천사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고 있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미국, 핀란드, 한국 등의 25개의 도시들을 방문, 콘서트를 가졌으며 1년에 40회 정도의 연주활동을 벌이고 있다. 모나코 왕실 합창단 프로그램은 브람스, 베르디, 멘델스존 등의 작곡가들의 음악뿐 아니라 포레, 브리튼, 생상과 같은 작곡가들의 그레고리안 성가와프랑스의 전통적인 노래들도 포함하여 다양한 레퍼토리를 자랑한다. **이성민**



인천 청소년음악회 2016 썸머페스티벌



공연일시 : 2016년 8월 9일(화) ~ 13일(토)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소공연장

관람료 : 전석 1만원

예매문의 : 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엔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관람연령 : 8세 이상(미취학아동 입장불가)



2016 썸머페스티벌 일정

8. 9(화) 오후 5시	① 교향악 모스틀리 필하모닉의 <교향악의 세계>	대공연장
8.10(수) 오후 3시 오후 5시	② 현 악 인음챔버오케스트라의 <연악으로 만나는 클래식>	소공연장
8.11(목) 오후 3시 오후 5시	③ 관현악 코리아솔로이스트오케스트라의 <관현악의 매력>	대공연장
8.12(금) 오후 3시 오후 5시	④ 타 악 서울 타악기 앙상블과 함께하는 <놀이>	소공연장
8.13(토) 오후 3시 오후 7시	⑤ 협주곡 인천시립교향악단 기적연주회	대공연장
	⑥ 관 악 소프라 호른 앙상블의 <Festival and Dance>	소공연장
	⑦ 합 창 인천시립합창단 제151회 정기연주회	대공연장
	⑧ 성 악 Hello, 성악 <저음의 감동, 바리톤VS 바리톤>	소공연장
	⑨ 오페라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	대공연장

*일정 및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인천 청소년 음악회 <2016 썸머페스티벌>이 6년째를 맞아 더욱 알차고 풍성한 기획으로 8월 9일 ~ 13일까지 5일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지난 5년간 누적 관객 3만 명 돌파! 청소년음악회의 스테디셀러!

'클래식은 지루하다! 어렵다!'는 편견을 정면으로 돌파한 <썸머페스티벌>은 잘 짜인 프로그램과 친절한 해설로 지난 5년간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 2011년 약 8천 명, 2012년 약 5천 명, 2013년 약 6천 명, 2014년 약 6천 명, 2015년 약 5천 명으로 지난 5년간 3만명이 관람하였으며, 특히, 2013년 6회 공연매진, 2014년 7회 공연이 매진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분야별 최고의 연주가들과 함께하는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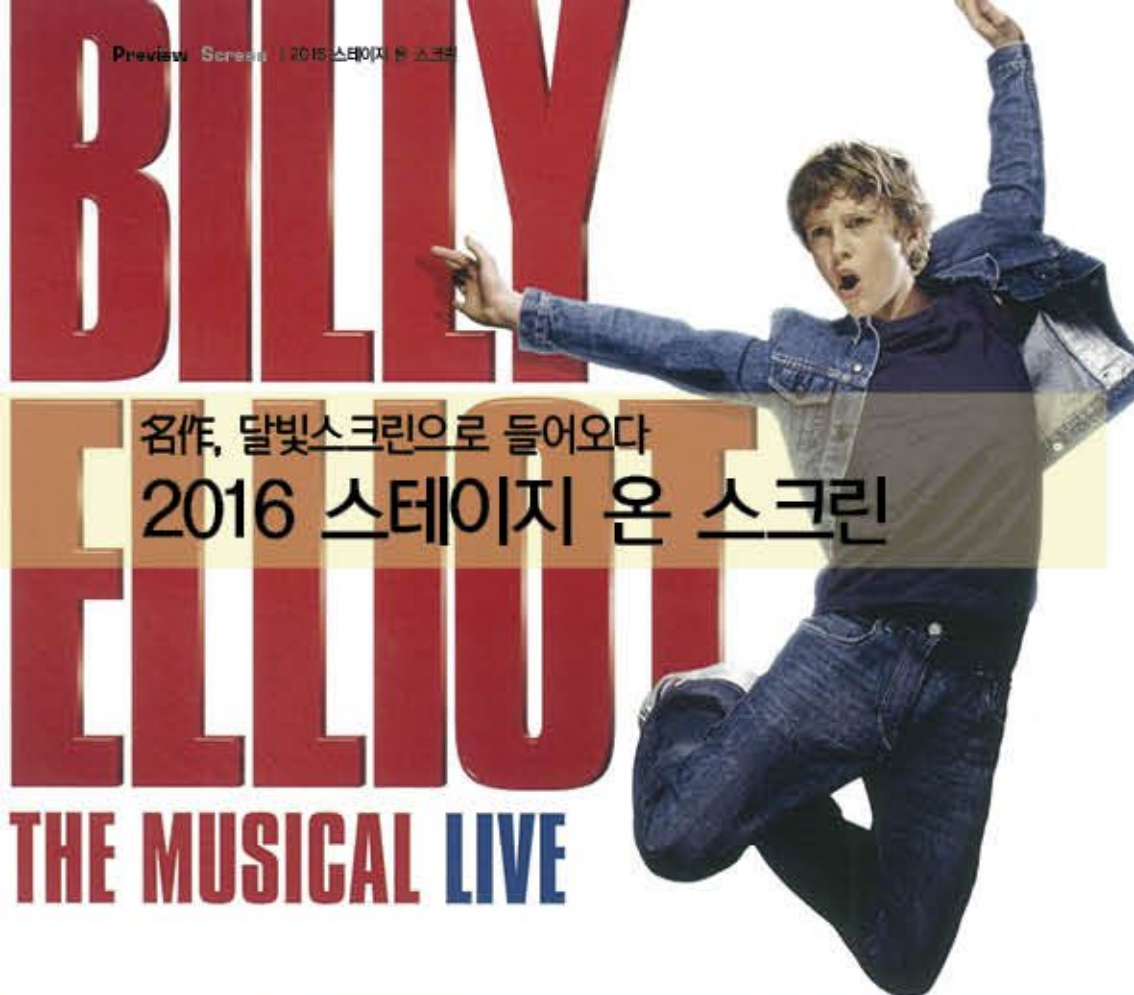
특히 올해는 각자의 분야에서 국내 정상급 실력으로 탁월한 연주력을 자랑하는 음악가들의 참여로 더욱더 기대를 모은다. 서양음악의 기악과 성악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연주팀들을 초청하여 썸머페스티벌이 진행되는 5일간은 귀가 즐거운 날들이 될 것이다.

서양음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연주형태별 음악회'로 기획!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양음악 연주형태별 음악회>로 기획되어 서양음악의 연주형태별 특징을 알 수 있는 음악회로 더욱 기대를 모은다. 대공연장에서는 "다양한 음색이 어우러져 빛어내는 하모니"를 들을 수 있는 교향악, 관현악, 협주곡, 합창, 오페라를 연주하며, 소공연장에서는 "악기 고유의 음색과 연주자의 뛰어난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실내악 앙상블(현악, 타악, 관악, 성악)"을 연주한다. 특히 연주 외에도 친절한 해설을 곁들여 관객들이 쉽게 음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천 썸머페스티벌"은 청소년, 클래식 입문자에게도 모두 추천!

또한, 저렴한 관람료로 수준 높은 연주를 알기 쉬운 해설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좋다. 수준 높은 연주에 착한 관람료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운 여름날 폭 산과 바다로 떠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가까운 공연장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추천한다. **이슈마인**



名作, 달빛스크린으로 들어오다 2016 스테이지 온 스크린



공연일시 : 2016년 8월 23일(화) ~ 27일(토) 오후 7시 30분
2016년 9월 28일(수), 10월 26일(수), 11월 30일(수) 오후 7시 30분
공연장소 :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8월) / 소공연장(9월, 10월, 11월)
공연장르 : 오페라, 발레, 뮤지컬 공연실황
관람료 : 무료
문의 : 032-420-2731



프로그램 상영일정

8.23(화)	매튜 본의 댄스뮤지컬 <잠자는 숲속의 미녀> - 2013 AMP 공연실황	야외광장
8.24(수)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 - 2012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공연실황	야외광장
8.25(목)	베르디의 오페라 <맥베스> - 2014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공연실황	야외광장
8.26(금)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 2012 바덴바덴 축제극장 공연실황	야외광장
8.27(토)	엘튼 존의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 2014 런던 웨스트엔드 공연실황	야외광장
9.28(수)	베르디의 오페라 <오텔로> - 2012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공연실황	소공연장
10.26(수)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카> - 2014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공연실황	소공연장
11.30(수)	크리스토퍼 윌슨의 모던발레 <겨울이야기> - 2015 영국로열발레단 공연실황	소공연장

*일정 및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순연,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년보다 더 화려하고 진귀한 작품으로 다시 찾아온다.

2013년 기획 첫해부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는 <스테이지 온 스크린>. 2016년에는 더욱 더 화려하고 진귀한 작품들이 라인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오페라, 발레, 뮤지컬 공연실황 총 8개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그 중 5개 작품은 지난 해와 같이 8월 말 야외광장에서 530인치의 대형스크린과 광활한 사운드를 통해 제공된다. 그 외 3개 작품은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안락한 소공연장에서 관객을 맞이한다.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 기념 <맥베스>, <오텔로>, <겨울이야기>

올해는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이 되는 해.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희곡작품을 토대로 쓰여진 오페라 2편과 모던발레 1편을 특징으로 구성하였다. 베르디의 오페라로 잘 알려진 <맥베스>와 <오텔로>는 메트로폴리탄오페라단의 최신 공연실황이며, 셰익스피어의 말년작품인 <겨울이야기>는 작년 영국로열발레단에서 초연으로 선보인 모던발레 작품으로 기존 고전발레와는 다른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스타디올러 오페라 <라 보엠>, <사랑의 묘약> 그리고 드보르작의 진귀한 오페라 <루살카>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 <라 보엠> 그리고 <사랑의 묘약>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버전으로 관객들을 맞는다.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은 2012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공연실황으로 현대적으로 각색되어 선보이며,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바덴바덴 축제극장의 예술감독으로 자리한 폴란도 비야손이 직접 연출과 출연을 맡아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카>가 오페라 마니아층을 겨냥한다.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그리고 댄스뮤지컬 <잠자는 숲속의 미녀>

올해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뮤지컬 2편은 전세계 81개 어워드 수상에 빛나는 급세기 최고의 감동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와 고전발레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천재 안무가 매튜 본의 탁월한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댄스뮤지컬 <잠자는 숲속의 미녀>이다. 두 작품 모두 8월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며, 늦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것이다. **이도민**

‘양들의 회전목마’

2016. 5. 6 ~ 7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사진 유창호



의식의 4 단계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습 그대로 사진을 찍었었는데.. 언제부터였을까 사진 찍는게 재미보다는 다른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쾰른 클래식의 진수를 경험한 밤

음악칼럼니스트 김승열 사진 유창호



1923년 독일의 명지휘자 헤르만 아벤트로트(1883-1956)에 의해 쾰른 챔버 오케스트라가 창단됐다. 올해로 9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악단은 독일 최초의 챔버 오케스트라라는 의미있는 기록을 품고 있는 오케스트라다. 이런 유서 깊은 악단이 지난 4월 29일 목요일 저녁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첫 내한무대를 가졌다. 악단의 위상에 비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나서 뜻깊은 내한공연을 성사시킨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

동악단을 창단한 명장 아벤트로트는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 사이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카펠마이스터를 지낸 독일음악계의 거인이다. 이후 1945년부터 1956년 타계할 때까지 바이마르의 음악총감독과 라이프치히 방송 교향악단, 동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의 수장으로 동분서주했다. 이런 아벤트로트의 숨결이 곳곳에 살아 숨쉬 악단이 바로 쾰른 챔버 오케스트라인 것이다.

그런 연유로 나는 지체하지 않고 지난 4월 29일 인천으로 향했다. 인천으로 향하는 중간, 문득 쾰른의 우수 악단들이 근래 몇 년 사이 첫 내한무대를 가졌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2014년 2월 마르쿠스 슈텐츠가 이끄는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첫 내한공연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말 유카 페카 사라스테가 이끄는 쾰른 서독일 방송 교향악단이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또한 첫 내한공연을 가진 사실을 상기해 보라.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번 쾰른 챔버 오케스트라의 내한무대까지 성사됐으니 국내의 클래식팬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쾰른의 음악지형도를 모두 일별한 셈이 되었다. 욕심을 부린다면 여기에 1985년에 창단된 원전연주의 강자, 콘체르토 쾰른의 내한까지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으리라.

쾰른 챔버 오케스트라와 포펜에 대한 기억들

필자는 2005년 연말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있는 쾰른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회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들의 무대를 놓친 기억이 있다. 당시의 지휘봉은 1964년부터 2008년까지 44년 간 동악단의 수장을 역임한 헬무트 필러 브뤼홀이 맡고 있었다. 1933년생의 브뤼홀은 2012년 연초 78세를 일기로 타계한 독일 음악계의 숨은 지존이다. 한

국이 배출한 바로크와 고전주의의 명소프라노 임선혜가 2003년 브뤼홀이 지휘하는 쾰른 챔버 오케스트라와 바흐의 미사 B단조를 함께한 명반이 있음도 기억해 두자.

게다가 2014년 이래 동악단의 음악감독을 수행해 오고 있는 크리스토프 포펜 또한 친한파 지휘자로 이름 높다. 그는 근래 몇 년 사이 대전시향과 동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등 국내 지방무대에서 입지를 넓혀온 청동파 독일지휘자다. 지휘자란 이력 이전에 포펜은 명바이올리니스트로 이름 높은 팔방미인이다. 소싯적 포펜은 오스카 섬스키와 나탄 밀스타인, 조세프 킹글트라는 전설적인 비르투오소들을 연거푸 사사한 명바이올리니스트였다. 1978년에는 케루비니 현악 4중주단을 창단해 리더로 활약하며 1981년 프랑스 에비앙 현악 4중주 콩쿠르에서 그랑프리틀 거머쥐었을 정도로 포펜의 리더십은 평판이 자자했다. 그러나 그는 바이올리니스트에 머물러 있을 그릇이 아니었다. 1989년부터 1995년까지 데트몰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역임한 것을 신호탄으로 뮌헨 챔버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으로 뻗어나가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 시기 동안에도 그는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활동 또한 다방하게 전개했다. 2006년에는 자르브뤼켄 방송 교향악단과 카이저슬라우테른 방송 교향악단이 합병해서 새롭게 출범한 도이치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첫 수석지휘자로 임명되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2011년까지 5년 간 이 신생 악단의 뿌리내림에 힘쓴 포펜은 현재 홍콩 신포니에타의 수석객원지휘자 및 포르투갈 마르방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으로 있으면서 비독일어권에서의 클래식 전파에 힘을 쏟고 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포펜의 부인이 명소프라노로 이름 높은 올리아네 반제라는 사실이다. 포펜보다 13세 연하의 이 아름다운 소프라노는 여지껏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 포펜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반제의 첫 내한공연이 성사되기를 또한 고대해 본다.

켈른 챔버 오케스트라의 관록이 빛아낸 천의무봉의 무대

이번 크리스토프 포젠 지휘 켈른 챔버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무대에서 관전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됐다. 100년 가까운 역사 동안 아베크트와 클렘페러, 브뤼홀 같은 거장들의 조련을 받아온 켈른 챔버 오케스트라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 관전포인트였다. 다른 하나는 포젠의 바이올린 제자이기도 한 클라라 주미 강의 협연 내용이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켈른 챔버 오케스트라는 최상급이었음에 반해 클라라 주미 강의 연주력은 그에 못 미쳤다.

포젠 지휘 켈른 챔버 오케스트라가 포문을 연 곡은 하이든의 교향곡 44번 '슬픔'이었다. 대단히 우아하고 아취깊게 전개된 1악장에서 유독 두드러진 악기는 오보에 솔로였다. 고비마다 애수에 젖어 비상하는 오보에 솔로의 부각은 이 교향곡이 '슬픔'이라 불리게 된 연유를 짐작케 했다. 통상적인 3악장이 아닌 2악장에 예외적으로 배치된 마뉴에트는 절도를 머금었지만 애상 가득한 비련의 색조로 물들어 있었다. 하이든 생전의 유언대로 1809년 하이든의 장례식음악으로 쓰였다는 3악장 아다지오는 악음기를 낀 스트링 파트의 옅은 슬픔의 색조가 인상적이었다. 추진력이 돋보인 4악장은 하이든만의 전아함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절편이었다. 1772년 볼록의 하이든이 세상에 내놓은 이 가작은 후기 런던 교향곡집과는 반대로 실연으로 만나기 힘든 레퍼토리다. 이런 희귀작을 켈른 챔버 오케스트라 같은 고품질의 악단이 일사불란하게 물들여 가니 연주는 최상급 그 자체였다.

그러나 잇따른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 '터키풍'이 불만이었다. 100년을 담금질한 켈른 챔버 오케스트라의 깊게 패인 그윽한 울림은 흡족했으나 클라라 주미 강의 운구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다. 1악장에서 그녀가 구현한 음상은 안정감이 모자랐다. 꼭 조이듯 집약된 소

리가 아니라 흔들흔들 요동치는 불안한 소리였다. 작년 5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서 서울바로크합주단과 최상의 '터키풍'을 일궈낸 핀커스 주커만의 명연주가 그리워지는 2% 부족한 해석이었다. 이 협주곡이 '터키풍'이라 불리게 된 연원을 제공하는 마지막 3악장 론도에서도 주미 강의 보잉은 응집되지 못한 산만함으로 일관했기에 아쉬움은 배가됐다.

후반부의 멘델스존 초기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에서 이르러 주미 강의 보잉은 앞선 '터키풍'에서보다 농밀해져 있었다. 그리고 보다 매끄러웠다. 그러나 13세 멘델스존의 습작 이상은 아닌 이 무색무취한 곡의 가치를 격상시킬 정도의 호연은 아니었기에 설부른 찬사는 금물일 수밖에 없다. 여전히 수업시대에 있는 클라라 주미 강의 건투를 빈다.

18세의 모차르트가 쓴 조로의 걸작인 교향곡 29번이 이 날의 백미였다. 1악장부터 모호한 구석 하나 없이 명징하고 선이 깨끗한 울림이 흘러나왔다. 악음에서조차 소리가 미세하고 또렷했다. 2악장 특유의 건강미는 농익은 소노리티 속에서 노련미로 거듭나고 있었다. 23명의 단원이 하나로 응집시킨 일사불란함은 3악장의 명쾌한 기초에서 유독 빛을 발했다. 잇따른 마지막 4악장에서 스피디하게 치달아간 속주 일변도의 합주력이 일품이었다. 유유자적 장중하게 흘러가다가도 꽤속질주하는 두 극단을 포젠 지휘 켈른 챔버 오케스트라는 별 어려움 없이 구현해내고 있었다. 그야말로 93년의 관록이 느껴지는 독일 정통 챔버 오케스트라만의 독보적인 매무새였다.

이 정도 탁월한 클래스를 자랑하는 국제적인 챔버 오케스트라의 실연을 접하기는 대단히 힘든 일이다. 앞으로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해외악단의 내한무대를 고대하며, 기대에 부푼 가슴을 안고 인천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 굴뚝 같다. **이창우**

지역 언론과 지역의 문화·예술 II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활력소 '제3의 눈'

글 강창대



1977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행하는 '신문과 방송'에도 언론매체의 예술보도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논평 한 편이 실렸다.¹⁾ 조선일보의 문화부에서 활동하던 정중헌(鄭重憲) 기자는 "마구잡이 무성적 보도에 급급"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당시의 미술기사에 대해 "기본적인 태도나 방향설정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쓴 소리를 남겼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전문분야에 일관할 제도 보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40여 년이 흐른 지금, 정중헌 기자가 던진 화두는 우리 사회 어디에 가 닿았고, 얼마만 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까.

Journalism



콜롬비아대학 석남리콜스쿨(Graduate School)은 마스터오브아트 프로그램(M.A. Program: Master of Arts Program)은 예술 분야에 특화된 석사학위를 양성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는 예술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 기성인을 양성하는 기관들이 있다.

전문성을 가진 전담기자

언론사마다 나름의 정책에 따라 기자들은 정치부, 사회부, 문화부 등에 소속시키고 각각 출입처를 할당한다. 이러한 체계에 따른 활동방식을 ‘거점취재’라고 한다. 거점취재는 새로 발생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취합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소위 ‘밤아쓰기’라는 병폐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더구나 담당하는 분야나 출입처가 종종 바뀌기도 해 기자가 전문성을 키우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정중현 기자의 쓴 소리는 여전한 외로운 항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실정과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언론에도 출입기자와 비슷한 의미로 ‘비트 리포터’(beat reporter)가 있다. 출입기자가 물리적 공간을 전담하는 것과는 달리 비트리포터는 물리적 공간과 더불어 ‘주제 영역’을 포괄한다. 비트리포터 가운데서도 전문성을 인정받는 고참 기자들은 ‘코레스폰던트’(correspondent)가 될 수 있다.²⁾ 리포터가 사실에 근거(fact-based)해 보도한다면 코레스폰던트는 역사적 맥락 등을 갖고 사실에 대한 해설을 제공한다. 해외 언론은 기자가 담당하는 분야에 따라,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직책이 입체적으로 분화돼 있다. 역할이 분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중현 기자의 글에 따르면, 이미 그 당시에도 일본은 ‘미술관계 보도 기자연맹’이 있었고, 언론사마다 두세 명의 미술기자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었다. 반면, 그는 우리나라 기자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떠맡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은 현재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비용 고효율을 강조하는 기업풍토가 그 대로 언론계에도 반영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럴 경우 조직은 실질적인 역할보다는 구색 맞추기로 흐름 공산이 크다.

1) “마구잡이 무성적 보도에 급급”, 신문과 방송, 정중현, 1977
2) “기자 호칭으로 본 미국의 저널리즘”, 슬로우뉴스, 2014.10.16

문화 저널리즘과 지역 언론

문화 또는 예술 저널리즘이라고 하면 대개 전문지 성격의 정기간행물을 떠올릴 것이다. 1999년, 「미술세계」는 3월호(통권 172) 특집으로 “21세기 지역미술 활성화를 위한 미술인프라 점검”이라는 주제를 갖고 지역의 미술 저널의 현황 및 과제 등을 짚었다. 특집 섹션은 지역 미술 저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는 여러 미술인들의 목소리도 담았다. 하지만 대개 전문지 성격의 저널리즘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에서 담론의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비평을 위한 공론장이 소위 ‘집안사람’이 주도할 경우 적절한 비평담론을 생산할 수 있을까? 더구나 위계와 인맥을 중시하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전망은 더욱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미술평론가 반이정 씨는 2009년의 국내 비평에 대해 ‘위기’라는 진단과 함께 “동조성과 성역에 갇혔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조성이란 “소속된 조직과 조화하는 방향으로 행동과 생각을 일치시키려는 경향”이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평균적인 비평의 문체와 어투를 따라하는 것으로 실행되곤한다”며 비평가 집단의 동조성에 대해 비판했다. 그리고 성역을 나이에 따른 위계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³⁾

이와 관련해, 1998년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기념 학술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논문에 선배 교수들의 친일행적을 언급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민수 교수(산업디자인) 사건은 단적인 사례다.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동료교수들은 침묵함으로써 ‘집안 단속’을 우선으로 끄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드러냈다. 성완경 교수(당시 인

하대학교 미술교육과)는 「서울 미대 품성론」이라는 글을 통해 “종갓집 모범생들의 몸에 밴 기율이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게 한 것”이라며 동료교수들의 침묵을 비판했다.

제3의 시각

유홍준 미술사학자의 「정직한 관객」에 소개된 일화가 눈길을 끈다. 그 일화에는 한 중년부부가 등장한다. 아내를 기다리며 전시장 출구에 있던 중년 신사가 아내를 보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하는 말이 “아니, 뭐 볼 게 있다고 여태껏 있는 거야. 이따위가 무슨 예술이야, 죄다 사기지.” 이런 솔직한 감상평은 왜 공론장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술 비평의 담론을 생성하는 공론장이 대개 ‘업계’ 또는 ‘집안사람’들에 의해 장악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하나는 관객의 저러한 반응이 놓인 맥락을 파악하는 전문적인 식견이 빈약한 언론매체의 문제도 있다. <세계일보>의 편완식 미술전문기자 역시 기자들에게 전문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런 말을 했다.⁴⁾

“언론사가 문화·예술이라는 큰 틀에서 기자들을 바라봐야 하는데 단순히 일의 영역, 경제 논리로만 대하기 때문이에요. 미술계의 풍부한 자원과 다양성을 조명해야 하지만 상업적 갤러리에 휘둘리거나 주어진 한계 속에서만 취재하는 기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기자는 담론을 형성하는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없죠.”

주로 미술계의 구조적 문제가 언급된 것이지만, 문화·예술계의 문제나 지역 저널리즘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하다. 이는 그만큼 문화·예술계가 정체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정체됐다는 것은 기득권 ‘성역’의 문제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흐름을 창조

하는 불씨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씨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더 이상 ‘업계 또는 집안’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3의 시각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계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담론을 생산해내는 주체, 그리고 ‘동조성과 성역’이라는 익숙한 벽을 뛰어넘고 깨부술 수 있는 ‘기자정신’이라는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그간 지역의 문화·예술 저널리즘은 경영적 위험과 자생성 등에서 취약성을 보여 왔다. 이미 갖추어져 있는 지역 언론을 거점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저널리즘을 구축하는 것은 그러한 취약성을 넘어서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언론과 대학, 문화·예술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도민**

정정합니다

본지 지난 호(Vol.33)의 내용 중 ‘인천 지역 언론매체 가운데 규모나 역사 면에서 대표적인 일반일간신문으로 꼽을 수 있는 곳은 인천일보와 기호일보’ (p.41)라는 표현은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일간지에 한정하여 표현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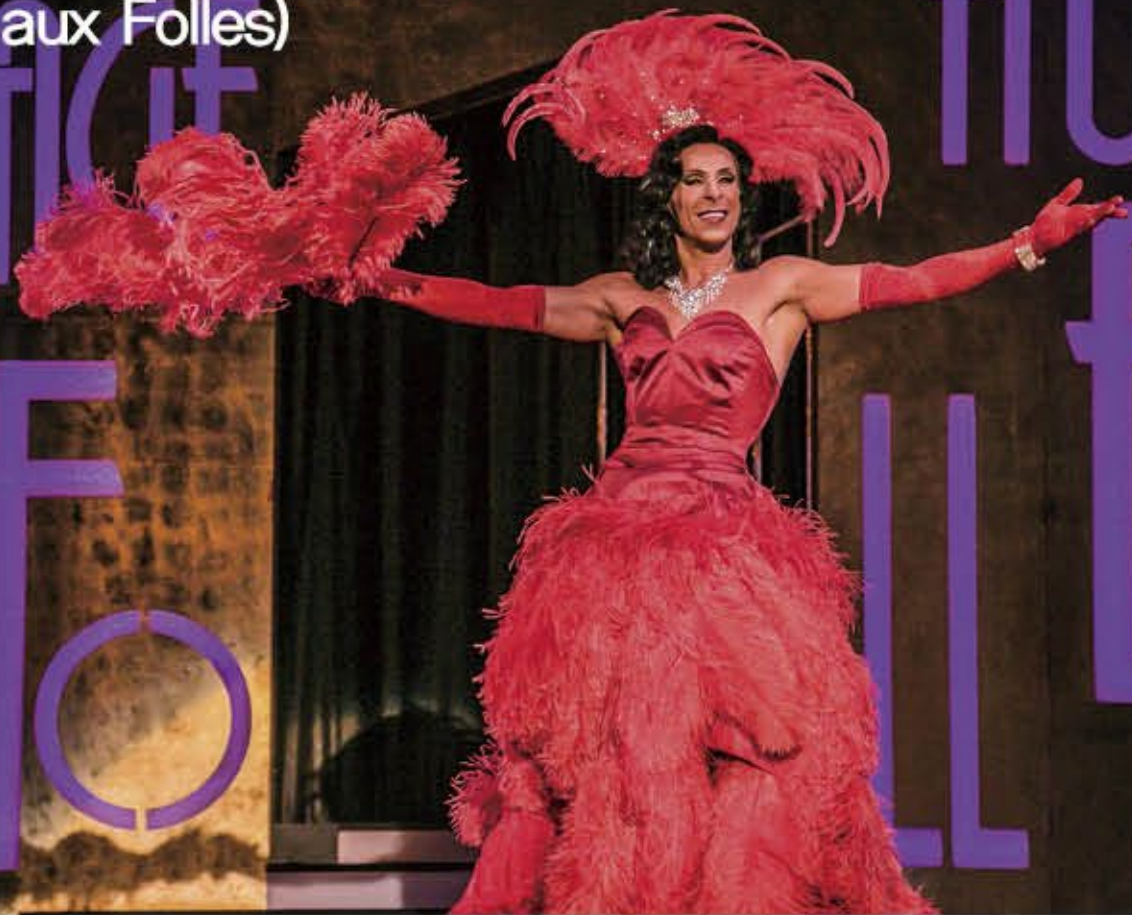
3) “반이정 미술비평: 2009년, 동조성과 성역에 갇힌 비평의 위기”, <월간미술>, 반이정, 2014.3
4) “미술에 빠진 시니어 기자, 예술분야 소용 역할 톡톡”, <한국기자협회보>, 2015.8.5



독일 오페라극장에 올려진 가장 게이스러운 뮤지컬

“라카조폴” (La Cage aux Folles)

글 이상선 (독일 통신원)



독일의 오페라극장에서는 오페라 뿐 만 아니라 현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 장르도 같이 공연됩니다. 제가 있는 독일 레겐스부르크 극장 또한 오페라 극장으로 주로 오페라 장르가 공연되지만 공연의 다양성 차원에서 한 시즌에 한 작품 이상의 뮤지컬 작품이 올리곤 합니다. 여기엔 뮤지컬을 주로 찾는 젊은 층들을 포함하여 잠재적 문화예술 팬을 발굴하고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을 비롯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팬 층을 확보하고 있는 뮤지컬 장르는 매년 큰 반응을 일으키며 매회 매진되는 사례를 보면 독일인들의 뮤지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페라 장르를 위주로 한 극장의 음악파트에서는 뮤지컬 관객이 오페라 공연에 유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면에서 관객개발 차원의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늘 적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클래식 오페라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고집과 뮤지컬 장르가 가진 매력적인 터겟파워 사이에서의 딜레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간 10편에 가까운 새로운 오페라 작품을 만들고 상연하고 있는 우리 극장에서는 최근 뮤지컬 한편이 올리졌습니다. 성소수자 게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뮤지컬 <라카조폴(La Cage aux Folles)>입니다. 평소에는 오페라 무대에서 클래식한 창법으로 연주하던 성악가들이지만 드물게 올라지는 뮤지컬 무대에서 만큼은 자유분방한 뮤지컬 가수로서의 면모를 과시합니다.

뮤지컬 “라카조폴”은 우리의 귀에 익숙한 낭만적인 선율과 화려한 무대, 그리고 특별한 성정체성에 관한 파격적인 소재로 우리나라에서는 악어컴퍼니에 의해 2012년 뮤지컬 ‘라카지’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는 이미 1983년 초연된 이후 여기 유럽에서도 각기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에 맞게 각색되어 가장 게이(gay)스러운 게이(gay)뮤지컬로 거의 매일 상연되는 뮤지컬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공연 내내 유쾌하고 코믹스러움에 관객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찾아오는 감동의 여운은 진한 페이스스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1973년 프랑스의 극작가 장 포와레(Jean Poiret)에 의해 연극으로 탄생한 이 작품은 미국으로 건너가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다시 화려하게 태어났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도시 상트로페즈(Saint-Tropez)의 전설적인 “라카조폴”이라는 중년 게이 부부 조지(George)와 그의 아내 앨빈(Albin)이 운영하는 클럽이 무대가 되어, 부부 사이에서 입양하여 키우는 사랑스러운 아들 장미셸(Jean-Michel)이 극우파 보수 정치인의 딸 앤(Anne)과 결혼을 선언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으로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그들만의 한편의 쇼가 벌어집니다.

주인공인 전설적인 가수 “자자(ZaZa)”는 공연 내내 하이힐을 신고, 여장을 하고 게이의 전형을 캐릭터로 코믹하게 연기합니다. 그리고 원본에 충실하기 보다는 시대에 맞게 각색한 텍스트로 진부함을 극복하고, 주인공의 유창한 입담으로 관객들은 공연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정적인 유희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성적체성을 표현하는 장면들에서 성적 취향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함께 작품을 만들어 가는 내내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적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성적 특별한 취향을 가진 게이의 사랑을 다루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와 같이 결혼을 허용하고, 그들 사이에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정치적 논쟁을 벌이며 당연하게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한 가지 예로 유럽 사법재판소는 동성 커플이 사실상 혼인 관계와 같다면 이들에 대한 미망인 연금 지불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유럽의 시선에서 현재 차별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에는 일반평등대우법(AGG)이라는 법적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이 평등법의 목적을 정의하면서, “인종이나 출신, 성, 종교, 세계관, 장애 여부, 연령 및 성적 정체성(Sexuelle Identität)”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적용범위로 노동생활, 사회보호, 공공시설, 교육 및 민법상의 문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적 정체성’에 대한 정의규정은 법률에 존재하지 않으나, 법률의 입법이유서를 통해 ‘동성애자(남성, 여성), 양성애자, 성전환자, 중간성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증하듯 공연은 종교 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주를 이룰 정도로 채도하여도 아무런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이의 사랑이라는 불편한 내용에 매몰되지 않고 작품 전체를 예술적 행위로 해석하고 승화하는 이들의 문화를 접하는 태도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바가 적지 않았습니다. 평등과 편견 사이에서 갈등하는 보수층 또는 종교 단체와 이들을 옹위하는 개방적 입장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릅니다.

독일의 오페라 극장들은 국가 차원의 큰 틀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레겐스부르크 극장에서 오랜만에 선보인 이 뮤지컬은 단편적으로 보면 극장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관객의 동원 면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오페라 전통과 명맥을 유지하려는 유럽의 몇 안 남은 극장으로서 클래식 저변확대라는 위기감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클래식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여 상호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적 의지가 부럽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클래식 전통의 계승을 통하여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야말로 이들에게 문화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어울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세월의 깊이가 물론 풍기는 그들만의 여유와 평안의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클래식 전통을 소중히 하는 독일을 보면서, 유행과 대중적 장르에 휘둘리는 듯 보이는 우리의 공연 문화 현실을 대할 때면 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깊은 고민과 노력이 뒤따를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승민**

시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되찾아드리고 싶어요.

도시에 문화를 입히다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글 조우선 사진 유창호

인터뷰를 위해 국장을 만나기로 한 4월 29일 오후 4시, 인천시청 문화관광체육국장실. 스케줄을 비워두긴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급한 내방객이나 결재로 인해 타이밍을 놓칠까 우려해 20분 전에 대기실에 도착했다. 점차 더워지는 계절 때문인지 열려있는 문을 통해 내방자 누군가와 대화 소리가 새어나온다. 내용까지는 알 수 없으나 언뜻 들어도 대화에 적잖은 에너지를 실은 열정어린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광역 도시의 문화, 관광, 체육을 책임지는 위치. 생각해 보면 녹녹치 않은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겠으나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열정은 남다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김상섭 국장만의 매력이었다.

사전에 질문지를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질문 내용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자칫 형식적이고 딱딱한 인터뷰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은 사실이다. 자료취합을 도우신 문화예술과 실무관은 국장님이 형식적이기보다는 자유로운 대화를 즐긴다고 했다. 간단한 인사 후 첫 질문을 던지자 예상처럼 열정이 느껴지는 국장의 답변이 서글서글한 미소와 함께 계속되었다. 필자가 본 국장의 모습은 합리적인 행정가다운 모습과 더불어 달변가였다.

여섯 개의 질문은 준비하였다. 다소 형식적인 질문도 포함되긴 하였으나 2016년 4월 현재 인천에서 펼쳐지는 문화적 이슈들 중 시의성이 있고 개별적 사업 소개보다는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조감도

Q 인천의 문화, 관광, 체육을 책임지고 계신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천은 인구 300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시립미술관처럼 조속히 보완해야 하는 시설들도 있지만, 찾아보면 '이런 시설이 있었네?' 하면서 놀라게끔 하는 인천 내 문화, 관광, 체육시설들이 많다는 반응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관련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시설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다가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반응일 텐데, 이것이 '현실과 인식 사이의 갭(gap)'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갭을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영종 하늘도서관처럼 시설이 건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대중교통편이 없어서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교통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버스 정거장 명칭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공공 편의시설에 대한 명칭 노출 또한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생활 속에 '문화를 입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와 관광이 만나 시너지를 발현하도록 '문화로 꽃 피는 관광, 관광 속에 숨 쉬는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과거의 문화적 자산만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앞으로는 미래의 문화적 자산을 저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섬 레지던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에는 168개의 섬이 있는데 다양한 특성이 있는 섬마다에 예술인들을 거주하게 하여 섬마다의 개성을 발견하고 스토리를 생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인 섬이죠.

Q 지난 3월 중국 아오란그룹 4천5백여명의 요우커들이 인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계획이 있는지와 인천의 관광 및 문화컨텐츠 개발 계획이 있으신지요?

물론 아오란그룹 관광에 이어 중국 등 여타 기업들의 방문예정이 기다리고 있고 이후에도 기업과 연계한 단체 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MICE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기업들의 직원포상 차원에서 '인센티브관광'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아오란그룹의 관광처럼 대단위 관광객이 방문하게 되면 그들을 수용할 만한 관광명소가 필요한데 시는 이를 위한 노력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복합리조트(IR, Integrated Resort)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복합리조트는 그 안에 쇼핑센터, 호텔과 더불어 카지노 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 인센티브 관광과 같은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70%를 차지하는 개별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컨텐츠 개발사업 또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영상위원회에서 '씨네마 천구(千九)' (가칭)라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인데,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한 숨겨진 지역명소들을 발굴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인거죠.





◀ 사공 중인 '아트센터 인천'

Q 서울로의 문화집중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정책이나 구상이 있으시다면?

2017년 2월까지 수행되는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방안과 생활문화 육성방안을 모색하여 인천이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제도적 장치로는 '지역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조례는 2016년 8~9월 중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안 사업으로는 지역 미술인들의 숙원사업인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더불어 계양구 소극장, 청라복합문화센터,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등 특색있는 거점형 문화시설의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정착하는 일은 단기간 해결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하기에 더욱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씨를 뿌리고 토양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향악단을 비롯한 시립예술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구상이 있으신지요?

인천시립교향악단은 1966년 6월 1일에 창단했습니다. 지역단위 교향악단으로서는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창단한 역사가 깊은 교향악단인거죠. 교향악단 뿐 만 아니라 1990년도에 창단한 인천시립극단은 지자체 극단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창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인천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활발한 도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인천의 창작 산실로서 또한 문화사절단으로서 시립예술단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작이라는 것은 자율성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기보다는 최대한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하여 '창의'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고, 인천의 대표적 창작 산실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Q 송도에 '아트센터인천'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월동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송도에 위치한 '아트센터인천' 두 곳의 적절한 포지셔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포지셔닝이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국제도시인 송도에 개관 예정인 '아트센터 인천'은 입지에 맞게 구도심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겨냥한 글로벌한 공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콘서트홀로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건립이 되는 만큼 인천의 클래식 문화가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또한 세계적안들에게 인천만의 예술을 선보이게 되는 대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도심에 위치하여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공간'이 주인이 아닌 '시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에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인천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때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인천 시민들은 산업전선에서 고생하면서도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서 스스로를 즐길수 있는 저녁시간을 잃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휴일만큼이라도 인천에서 쉬고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서 시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되찾아드릴 수만 있다면 더없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의외로 많아요. 시민들께서도 인천의 문화예술을 비롯한 즐길 거리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노력하는 우리들로서는 큰 보람이지 않겠습니까? **아트센터**



1) MICE산업, MICE는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관광(Incentive), 국제회의(Conference), 전시사업(Exhibition)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에서 첫머리를 딴 것이다. 종종 MICE에서 E가 행사(Event)를, C가 컨벤션(Convention)을 지칭하기도 한다.

NEWS



▲ 2016년 세계현대음악제

시립합창단, 2016 세계현대음악제에서 공연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2016 통영국제음악제'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대장정을 마쳤다. 3월 28일(월)에는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현대음악 포럼인 ISCM 국제현대음악협회의 세계현대음악제에 인천시립합창단이 초청되어 공연을 하였다. 뛰어난 기량과 신선한 기획력으로 대한민국 정상의 자리를 지키며 합창음악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는 시립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다시 한 번 한국의 대표적 합창단 자리를 확인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함께 50여 개국 대표가 참가한 이번 음악제는 다양한 초연작을 비롯해 국내외 최정상급 연주자들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국제현대음악협회는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역사가 오래된 작곡가 협회로 1922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발족하였으며 매년 소속회원 지부가 주관하는 세계현대음악제는 세계 현대음악의 최신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작곡가들에게 도전의 장이 되어 오고 있는 무대이다.



▲ 2016년 교향악축제

시립교향악단, '2016 교향악축제' 참여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지난 4월 17일(일) 예술의전당 대표 기획 프로그램 '2016 교향악축제'에 참여해 안정된 기량을 선보였다. 정치용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인천시립교향악단과 바이올린 윤은솔, 이우일, 비올라 김세준, 첼로 조형준 등 우리나라 차세대 유망주로 구성된 현악4중주단 아벨과르텟이 협연했다. 첫 곡으로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의 제지 있고 화려한 관현악 편성이 돋보이는 로마의 사육제 서곡이 연주되었다. 뒤이어 슈포어의 현악4중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아벨과르텟이 함께했다.

이번 교향악축제에 협연으로 참여한 아벨과르텟은 2015년 제9회 하이든 국제 실내악 콩쿠르 우승팀이다. 하나의 독주 악기가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일반적인 형식이 아니라 한 무대에서 4명이 함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협주곡 형식은 흔치 않다는 점에서 이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은 평소 접하지 못한 유쾌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마지막 곡으로 프랑스의 교향곡 대표주자인 프랑크 교향곡 d단조로 마무리했으며 앙코르 곡으로 구노의 〈파우스트 왈츠〉와, 하이든의 〈현악4중주〉로 흥집을 데 없는 연주를 선보였다. 2016 교향악축제는 '오케스트라의 모든 것을 만나다'라는 부제로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올렸으며 올해 교향악축제에는 전국의 총 19개 오케스트라가 참여하였다.

NEWS



▲ 공연·전시 홍보용 현수막 게시대

공연·전시 홍보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설

지난 4월 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공연·전시를 홍보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그동안 예술회관 내에는 3곳(10면)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공연 및 전시가 성수기 때는 홍보 현수막 게시 수요가 급증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예술회관은 가로수, 신호등, 전봇대 등에 무질서하게 게시되던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수용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사업에 신청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 4월 15일부터 운영하게 되었다.

앞으로 예술회관은 관내에 남아 있는 안내게시판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신설 및 보수하여 공연·전시 한 눈에 볼 수 있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엔 신설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예술회관역 6번 출구에 위치해 있으며 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공연·전시 주최측은 회관에 내방하여 사전 신청과 검인 후에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032-420-2732



▲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술회관, 2016 자유학기제 문화예술분야 프로그램 운영지원

2016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하여 예술회관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중학생 진로직업체험을 위한 문화예술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술회관에 따르면 관내 중학교에 개방되는 프로그램은 중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준비하여 4개 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공연 연습실과 대·소 공연장, 의상·소품실을 견학 및 체험학습장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각 예술단별 5명씩 신청을 받으며 예술단 직원이 멘토로 실질적인 체험활동을 돕는다. 뿐만 아니라 공연장에서는 해외 대형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 〈레미제라블〉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국립현대무용단의 인기 페르토리 〈춤이 말하다〉와 우리나라 현악4중주단의 대표 주자인 '노부스 퍼펙트', 한계 없는 테크닉과 뛰어난 통찰력의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무대를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는 '현장 전파행' 및 뮤지컬〈미스사이공〉의 제작과정을 알아보는 '강연 대화행'을 구성하였다.

이번 자유학기제로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인 예술회관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미래 인재 육성 및 향후 잠재적인 문화 수요층까지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예술회관은 "관심분야, 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중학생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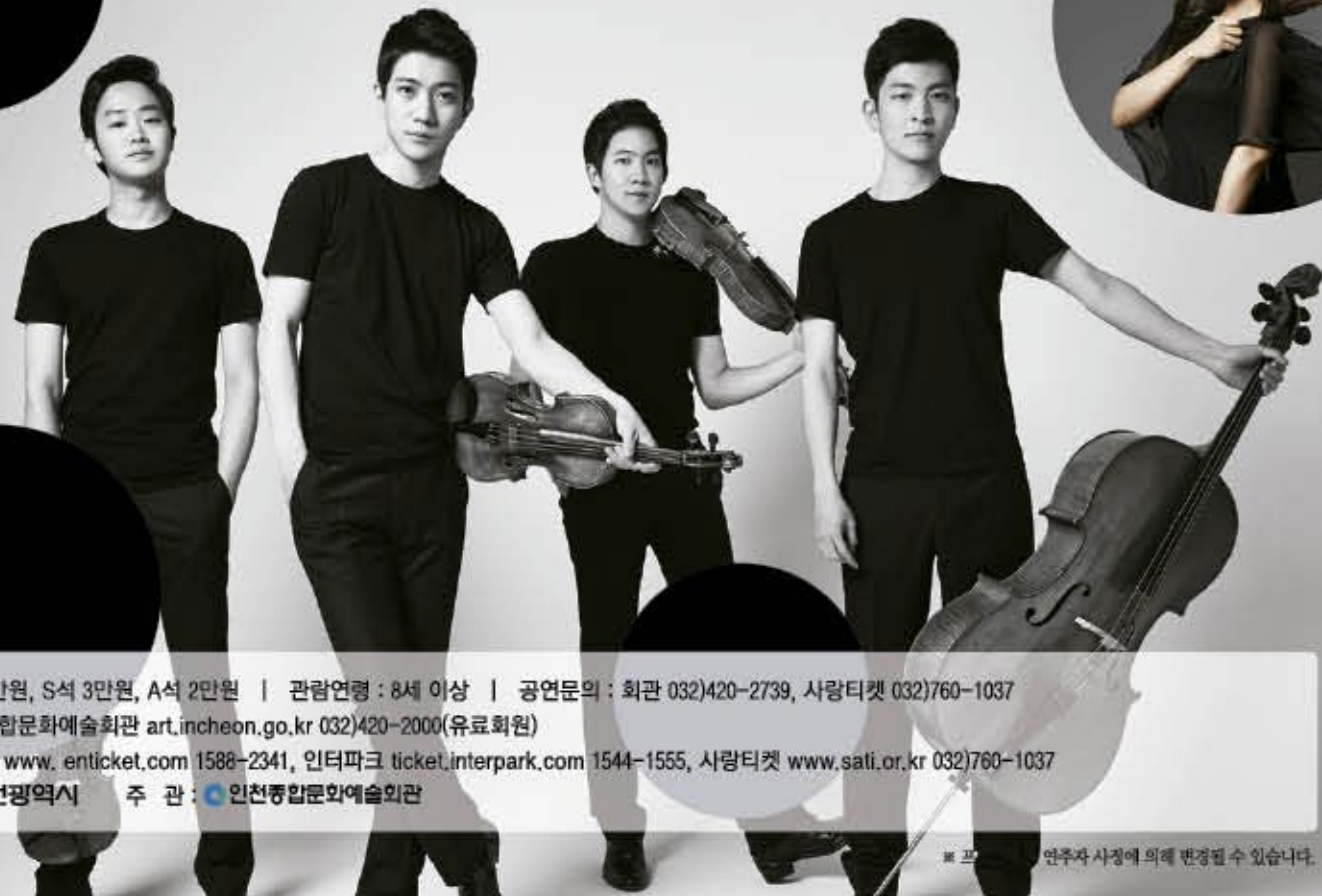
신청방법은 인천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된다.

SHOSTAKOVICH

노부스 콰르텟 with 손열음 <쇼스타코비치>

2016년 9월 3일(토)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관람연령: 8세 이상 | 공연문의: 회관 032)420-2739, 사랑티켓 032)760-1037
예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art.incheon.go.kr 032)420-2000(유료회원)
엔티켓 www.enticket.com 1588-2341,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사랑티켓 www.sati.or.kr 032)760-1037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연주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장 및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6월 Performance June

06 02 인천시립합창단 브런치콘서트
2016. 6. 2 / 오전 11시 / 전석 1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합창단

06 03 부평구 시민합창단 정기연주회
2016. 6. 3 / 오후 7시30분 / 초대 / 소공연장 / 010-3032-8194 / 부평구시민합창단

06 04 인천연수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2016. 6. 4 / 오후 7시 / 전석 5천원 / 소공연장 / 032-818-7939 / 인천연수소년소녀합창단

06 09 스테이지 149 - 연극선집1, 백석우화
2016. 6. 9 ~ 6. 11 / 9일 오후 2시, 10일 오후 8시, 11일 오후 3시 / 전석 2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6 10 Rainbow Season - Blue
인천시립교향악단 제 355회 정기연주회
<낯설음과의 조우, 신세계>
2016. 6. 10 / 오후 7시30분 / R석 1만원, S석 7천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교향악단

06 12 2016 장범준 전국공연 <사랑에 빠졌어요>
2016. 6. 12 / 오후 6시 /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 대공연장 / 1566-6551 / OBS경인TV

06 15 커피콘서트VI 여성트리오
<정가(正歌) 양상봉 소울(Soul)지기>
2016. 6. 15 /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6 17 연극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2016. 6. 17 ~ 6. 19, 6. 24 ~ 6. 26 / 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일요일 오후 2시 / 전석 3만원 / 소공연장 / 1544-3901 / (주)엠플러스

06 18 패밀리 쇼!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2016. 6. 18 ~ 6. 19 /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 대공연장 / 1566-6551 / 청라아트

06 22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여명의 빛>
2016. 6. 22 / 오후 7시30분 / 초대 / 대공연장 / 010-6755-2751 / (재)유나이티드문화재단

06 28 제24회 새얼극악의 밤
2016. 6. 28 / 오후 7시30분 / 초대 / 대공연장 / 032-885-3611 / 새얼문화재단

06 28 스킨라 소년소녀합창단이 들려주는 힐링콘서트
2016. 6. 28 / 오후 8시 / 전석 2만원 / 소공연장 / 032-888-9911 / 스킨라오페라

06 29 스바보드나 <세계거장들과 함께하는 그라시아스합창단 특별콘서트>
2016. 6. 29 / 오후 7시30분 /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 대공연장 / 070-7538-5303 / 그라시아스합창단

06 29 제12회 플립스 플루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평화와 화합을 위한 행진>
2016. 6. 29 / 오후 7시 / 초대 / 소공연장 / 010-2602-4420 / 플립스 플루트 오케스트라

06 30 솔로모 민츠 & 윤동환 <세계적 거장과의 만남>
2016. 06. 30 / 오후 8시 / R석 5만원, S석 3만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6 09



06 10



06 12



06 15



06 17



06 18



06 29



06 30



07 08



07 09



07 09



07 15



07 20



07 20



07 24

7월 Performance July

07 02 인천어린이집연합회 가족문화 나눔이
2016. 7. 2 / 오후 3시, 5시 / 초대 / 대공연장 / 032-880-4280 / 인천광역시남구청

07 02 김현아 피아노 독주회
2016. 7. 2 / 오후 3시 / 학생 1만원, 일반 2만원 / 소공연장 / 010-6245-5733 / 김현아

07 08 스테이지 149 - 연극선집2, 경숙이, 경숙 아버지
2016. 7. 8 ~ 7. 9 / 8일 오후 8시, 9일 오후 3시, 7시 / 전석 2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7 09 가족뮤지컬 <정글에서 살아남기>
2016. 7. 9 ~ 7. 10 /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30분 /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 대공연장 / 1544-3901 / (주)옴플러스

07 12 무용단 기획공연 제30회 I-Dance <초방안무가전 2>
2016. 7. 14 / 오후 8시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무용단

07 14 제18회 이웃사랑 열린음악회
2016. 7. 14 / 오후 7시 / 전석 2만원 / 대공연장 / 032-446-2598 / 남동구사랑나눔기추진위원회

07 16 2016 클래식시리즈3 - 모나코 왕실 소년 합창단
2016. 7. 16 / 오후 7시 / R석 3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7 16 연극 <인조, 길 끝에 서다>
2016. 7. 16 ~ 7. 17 / 16일 오후 7시, 17일 오후 4시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 / 소공연장 / 032-762-1246 / 극단 집현

07 17 인천지역 청소년들의 클래식 향연 <두번째 이야기> 음악에 꿈을 던져보다
2016. 7. 17 / 오후 6시 / 전석 1만원 / 대공연장 / 032-438-6040 / 인천청소년교향악단

07 20 카피콘서트Ⅶ 더 버드(The Bird) <재즈+록, 그 음악적 관계의 유쾌함>
2016. 7. 20 /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7 21 어린이 위생·영양뮤지컬
2016. 7. 21 ~ 22 / 21일 오후 2시, 22일 오전 10시30분, 오후 1시 / 초대 / 소공연장 / 032-860-9247 /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07 22 인천시립교향악단 <햇 썸머 시즌>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
2016. 7. 22 ~ 7. 23 / 22일 오후 7시 30분, 23일 오후 5시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교향악단

07 23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2016. 7. 23 ~ 7. 24 / 23일 오후 2시, 4시, 24일 오전 11시, 오후 2시 / 전석 2만5천원 / 소공연장 / 02-868-6748 / 극단솔이

07 24 VIRTUOSO OF INCHEON Ⅷ
2016. 7. 24 / 오후 5시 / 전석 1만5천원 / 대공연장 / 032-819-0505 / 인천신포니에타

8월 Performance August

08 09 2016 썸머페스티벌 모스틀리 필하모닉의 <교향악의 세계>
2016. 8. 9 /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8 10 2016 썸머페스티벌 코리아 솔로이츠 오케스트라의 <관현악의 매력>
2016. 8. 10 /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8 10 2016 썸머페스티벌 인음챔버오케스트라의 <현악으로 만나는 클래식>
2016. 8. 10 / 오후 3시 / 전석 1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8 11 2016 썸머페스티벌 인천시립교향악단 <햇 썸머 시즌>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2016. 8. 11 /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8 11 2016 썸머페스티벌 서울 타악기 앙상블과 함께하는 <놀자>
2016. 8. 11 / 오후 3시 / 전석 1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8 12 2016 썸머페스티벌 인천시립합창단 제151회 정기연주회
2016. 8. 12 /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8 12 2016 썸머페스티벌 소프라 호른 앙상블의 <Festival and Dance>
2016. 8. 12 / 오후 3시 / 전석 1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8 13 2016 썸머페스티벌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
2016. 8. 13 / 오후 7시 / 전석 1만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8 13 2016 썸머페스티벌 Hello, 성악 <저음의 강동, 바리톤 VS 바리톤>
2016. 8. 13 / 오후 3시 / 전석 1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8 17 카피콘서트Ⅶ 연극 <엄청난 유씨>
2016. 8. 17 /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8 18 극단 기획공연
2016. 8. 18 ~ 8. 21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극단

08 19 가족매지컬 <마법의 버스 타고> - 인천
2016. 8. 19 ~ 8. 20 / 19일 오후 7시30분, 20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30분 /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 대공연장 / 1566-6551 / 청라이프

08 23 기획공연
2016. 8. 23 ~ 8. 28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8 26 인천시립교향악단 <햇 썸머 시즌> 차세대 지휘자 데뷔콘서트
2016. 8. 26 / 오후 7시30분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교향악단

08 30 무용단 기획공연 제30회 I-Dance 객원안무가전3
2016. 8. 30 ~ 8. 31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무용단



08 09



08 11



08 10



08 11



08 11



08 12



08 13



08 13



08 17

6월 Exhibition June

06 03 인천 현대미술의 흐름전

2016. 6. 3 ~ 6. 9 / 대전사실 / 010-3783-5922 / 새한경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06 03 제15회 원복회전

2016. 6. 3 ~ 6. 9 / 중앙전사실 / 010-6221-9855 / 원복회

06 03 한국화 김현숙 개인전

2016. 6. 3 ~ 6. 9 / 소전사실 / 010-5287-4287 / 김현숙

06 03 제12회 바첼아카데미 회원전

2016. 6. 3 ~ 6. 9 / 미추출전사실 / 010-7274-3601 / 바첼아카데미



한국화 김현숙 개인전



인천 현대미술의 흐름전



김진숙 개인전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제15회 원복회전



제12회 바첼아카데미 회원전



한·중교류전



제2회 사랑, 나눔전 인천학원연합아동미술분과



구월회 개인전



제4회 인천문화예술제

06 17 Incheon Art Fair of Living

Collaboration 및 회원전
2016. 6. 17 ~ 6. 23 / 대, 중앙전사실 / 010-4914-0551 / 사)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06 17 새빛모임 정기회원전

2016. 6. 17 ~ 6. 23 / 소전사실 / 010-5380-0518 / 사진모임 새빛

06 17 인천청관회 원로작가전

2016. 6. 17 ~ 6. 23 / 미추출전사실 / 010-2174-9636 / 인천청관회

06 24 2016년 한·중 교류전

2016. 6. 24 ~ 6. 30 / 대전사실 / 010-4743-9072 / 인천미술협회

06 24 한국화 유순희 개인전

2016. 6. 24 ~ 6. 30 / 중앙전사실 / 010-9077-4940 / 유순희

06 24 제26회 인천서예술연구회전

2016. 6. 24 ~ 6. 30 / 소전사실 / 010-9950-3351 / 인천서예술연구회

06 24 김정열 개인전

2016. 6. 24 ~ 6. 30 / 미추출전사실 / 010-3339-0684 / 김정열



26회 인천서예술연구회전



김진숙 개인전



한국화 유순희 개인전



2016년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청구회전

7월 Exhibition July

07 22 제36회 인천광역시 공예품대전 전시회

2016. 7. 22 ~ 7. 24 / 미추출전사실 / 032-440-4278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8월 Exhibition August

08 19 2016년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청구회전
2016. 8. 19 ~ 8. 25 / 대전사실 / 032-835-8560 /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입장 및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Culture Leader

회원가입안내

Pause... '쉼'이 필요하시다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Culture Leader 회원이 되세요.
살이 풍요로워 집니다.



Culture Friends 제휴점 이용시 할인 제공

계간 문예정보지 '아트인친' 무료 우송

월간 Program Guide(공연안내지) 무료 우송

기획 및 시립예술단 공연 10 ~ 40% 범위 내 할인 (일반회원 2매한 / 가족회원 4매한)

회원가입방법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art.incheon.go.kr)에 접속 → 우측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 '유료회원가입하기' 클릭 가입신청서 기재 후 '확인'
- 회원가입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시고, 선택하신 유료회원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아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2-745489(종합문화예술회관)
- 입금확인 연락처 : 032)420-2739 정기회원담당자

회원공연예매는 이렇게

- 매월 공연안내지 발송 시 '회원 안내문'에 회원 할인공연을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 회원 할인대상 공연에 대한 예매는 '회원 안내문'에 기재된 예매처로 예매하시면 편리합니다.
 - 회원 할인 전화예매는 공연 3일전까지 가능하며 공연 당일 매표소에서 회원증을 제시하시면 예매하신 좌석권을 교부해 드립니다.
 - 예매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기획사로 연락바라며, 회원 예매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아래의 회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정기회원담당자 : 032) 420-2739

센트럴프라자호텔
호텔객실 50% 할인
(전 객실 주문, 주말, 부가세 포함)

센트럴프라자호텔 인천은 시청, 교육청, 경찰청 등의 행정업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세계,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의 쇼핑몰과 문화예술회관, 문학경기장, 구월동 롯데오거리, 가천 길병원, 21세기 병원 등과 인접해 있어 비즈니스 고객 뿐만 아니라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들도 다양한 문화와 휴양을 즐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남동구 예술로204번길 15
Tel. 032)724-1000

Serendip Dining Cafe
다이닝카페 세렌디프
모든메뉴 10% 할인

다이닝카페 '세렌디프'는 송도신도시 캐널워크에 새롭게 문을 연 고품격 레스토랑이다. 감각적이고 모던한 인테리어는 물론, 인천대학교의 야경과 캐널워크의 산책로는 고객님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 준다. 특급 호텔 출신의 경영진과 셰프가 모여 만든 고급메뉴와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가 연인, 친목모임은 물론 귀한 손님을 모시기에 손색이 없다.

연수구 송도동17-1 캐널워크 401동(Winter) 205호
Tel. 032)261-0400

Petit Art Roasting Coffee & Dessert
로스터리 커피 하우스 뽀띠아르
모든메뉴 10% 할인

예술회관 바로 앞엔 로스터리카페 '뽀띠아르(petit art 작은 예술공간)'가 있다. 카페에선 후지로일(Fuji)의 생소한 불꽃으로 생두를 볶고, 핸드드립으로 원두의 풍미를 절묘하게 담아낸다. 세계 곳곳의 스페셜티 커피를 구해서, 고르고 볶고 내리는 주인의 손길은 마에스트로의 몸짓처럼 신중하고 단호하다. 음악과 연극 그리고 커피... 살이 되는 예술. 그 어디쯤에 뽀띠아르가 있다.

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너편, 남동구 문화로 93-1
Tel. 032)423-3787

포린커피
커피 및 음료 10% 할인

예술회관 주차장 입구의 건너편에 위치한 포린커피 (Fall in coffee)는 주인장이 직접 로스팅한 신선한 아라비카 원두만을 사용하여 커피를 내립니다. 산자별로 특별한 향의 핸드드립커피를 맛볼 수 있으며 원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직접과일을 넣어 만드는 '전파과일 스무디'와 국 내산 팔로로 직접 우려 만든 '술직한 팔방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술회관 주차장 입구 건너편, 남동구 문화로 61
Tel. 032)429-1107

Culture Friends

제휴점

공연정보가 제공되고
공연의 감동이 이어지는 공간
Culture Friends 제휴점에서
Culture Leader 회원증을 제시해 주시면
소정의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태양스튜디오

태양스튜디오(since1977)

인물/가족사진 20% 할인



40년 전통의 정통 인물사진 스튜디오. 인천가톨릭대 문화예술교육원 사진영상과에서 16년간 강연하고 있는 유재형 사진가가 직접 촬영해 드리며 인물의 특성에 맞는 조명과 청단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고객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사진작업을 진행하여 모던한 인물사진을 만날 수 있다.
* 외부 촬영이 잦은 관계로 사전 예약 필수

남동구 문화로 61, 31 태양스튜디오
Tel. 032)433-502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약도 및 교통편 안내



■ 지하철 이용시

국철 1호선 부평역에서 인천지하철 국제업무지구방면으로 환승하여 예술회관역 하차 6번 출구

■ 버스이용시

- 예술회관역 정류장 간선버스(파랑) : 21, 41, 77, 754
- 문화예술회관 정류장 지선버스(초록) : 523, 534
- 신세계백화점(터미널) 정류장 (인천시청방면 도보 10분)
간선도로(파랑) : 3, 4, 6, 6-1, 11, 13, 21-1, 22, 27, 35, 36, 38
- 지선버스(초록) : 31, 514, 514-1, 520, 534
- 좌석버스 : 111, 111-2, 700
- 광역버스 : 1300, 1400

■ 자가용 이용시

- 경인고속도로
도화IC → 도화초교사거리(주안역방면 우회전) → 주안역삼거리(문학경기장방면 우회전) → 구시민회관 사거리(석바위 방면 좌회전) → 시청역사거리(종합문화예술회관 방면 우회전) → 예술회관역 → 종합문화예술회관 주차장(우회전)

• 제2경인고속도로

- 남동 IC → 남동경찰서 사거리(종합문화예술회관 방면 좌회전) → 중앙공원 사거리(종합문화예술회관 방면 우회전) → 종합문화예술회관 주차장(우회전)

■ 주차안내

- 주차요금
- 처음 30분 : 일반차량 600원 (경차 및 장애인 차량은 할인 적용 됩니다.)
- 정산소에 공연티켓 또는 관람확인증 제출 시 1,500원입니다.
- 주차시설 이용문의처 :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032)579-2701~3
- ※ 교통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모 민츠 & 윤동환

세계적 거장과의 만남

지휘 솔로모 민츠 Shlomo Mintz
협연 솔로모 민츠 Shlomo Mintz, 윤동환 Donghwan Yoon
연주 바흐 콜레기움 서울 Bach Collegium Seoul

2016.6.30(THU) 8PM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 5만원 S 3만원 관람연령 8세이상 주최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주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Incheon Comprehensive Cultural Arts Center
예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 032)420-2000(회관 유료회원 전용) | 엔티켓 1588-2341 | 인터파크 ticket, 1544-1555

LES PETITS CHANTEURS DE MONACO



*Sous le Haut Patronage
de S.A.S.
le Prince Albert II
de Monaco*

모나코 왕실 소년합창단 내한공연



2016.7.16(SAT) 7PM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 3만원 S 2만원 A 1만원

관람연령 8세이상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예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 032)420-2000(회관 유료회원 전용) | 엔티켓 1588-2341 | 인티파크 ticket, 1544-1555